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787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유동공소(도고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2년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2024년 5월 12일(나해)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르 16,15-20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퀴바디스” 청년 사제성소 모임

5월 18일(토) 오전 10시
교구청 2층 성소국

예비 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강대원 즈카르야
홍보국장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께서는 승천하기 전 제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남겨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
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
여라.” 교회의 존재 이유

이며 실현해야 할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모든 피조물
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대한 증언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름에 맞는 삶의 모
습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간혹 삶으로 증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리고 모든
이에게 기쁜소식을 전하기보다는, 하느님과의 개인적
인 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와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작은 행복에 머
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차원에 머무는 이들은 그 작은 행복에 취해 살고 있습

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관한 말씀과는 정반
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년, 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이
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가진 행복을 전해주고 함
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권유하며 지내온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비신자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고 냉담자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
이 녹여 다시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 나가게
한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일이 많았던 분들은
분명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은 칭찬을 듣고 그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칠 것입
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적었던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체험한
신앙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입
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받았다면 그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나눔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것
들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
식을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
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서천성당

지난 5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번 회에서는 서천성당의 박 아네스 자매님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Q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힘을 얻고 있는 기도 생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 아네스 자매님 저는 성경필사를 두 번 완료했고 현재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필사를 통해 커다란 은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팠을 때 함께 필사를 해 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당시에는 함께 필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매일 같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부님의 강론 중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맡길 때 주님께서 손수 이끌어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체험했고 이런 의미에서 많은 분이 성경필사에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Q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단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박 아네스 자매님 제가 50대였을 때 성모회장과 부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매님들과 함께 즐겁게 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이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성모회라는 단체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성모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봉사해 달라는 신부님과 수녀님의 말씀에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데다 벌써 7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다시 모여준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신앙체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모아준 분들과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신앙 여정』 후보 연재를 맺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위기와 부침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목 활동과 신앙 생활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교회 사목 활동에서 부족했던 면모들이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많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봉사자,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하느님 백성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미사 전례와 성사의 중요성, 교회 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 사도직 단체,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위로에 대해 소중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홀로가 아니라 함께 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시노달리타스’가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사제, 수도자, 하느님 백성이 진정한 의미의 친교를 이루고 신앙 안에서 내적으로 더욱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주일미사와 일상의 삶이 연결되고 세대 간 통합(청년, 노인 등)을 이루며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신앙의 공공적 실천을 심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신앙 여정』 이 아름다운 말값이 우리 신앙 안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실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80. 미사 해설 - 마침 예식(3) : 강복 (2)

140. 특별한 날이나 상황에서는 예식 규정에 따라 이 강복 대신에 장엄 강복이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644-662면 참조).

① 장엄 강복 (Benedictiones sollemnes)

위에 소개해 드린 미사 예규 142항에서 “특별한 날이나 상황에서는 강복 대신 장엄 강복”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미사 끝 강복과 백성을 위한 기도” 부분에서는 장엄 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사 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강복은 미사, 말씀 전례, 성무일도, 성사 거행 끝에 사제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부제가, 부제가 없으면 사제가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시다.” 하고 권고할 수 있다. 이어서 사제가 교우들을 향하여 팔을 펴 들고 강복을 하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한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장엄 강복에 대해서 다음의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제시된 시기에는 주례자의 권한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 주님 성탄, 새해, 주님 공현, 주님 수난, 부활 시기, 주님 승천, 성령 강림, 연중 시기 1~6,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 사도 축일, 모든 성인 축일, 성당 봉헌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장엄 강복을 이해할 때, 장엄 강복이 일반 강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장엄 강복과 강복의 차이는 복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강복은 이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이 있기를 바라며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장엄 강복은 강복과 같은 개념에서의 청원이지만, 특별히 말씀이 삽입되어, 구체적인 기도 내용과 말씀을 통해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② 백성을 위한 기도 (Oratio populum)

미사 끝이나 시간전례에서 사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파견 축복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는 장엄 강복에 지향이 3개 있는 것과 달리 지향이 1개만 있는 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말한 다음, 부제나 사제가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시다.” 하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제가 교우들을 향해 팔을 펴 들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하고 강복합니다. 2017년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새롭게 펴낸 미사 경본에 의하면, 사순 시기 주일에는 이 기도를 바쳐야 하고, 사순 시기 평일에는 “자유로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28가지의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대전성모병원 ‘자선진료’ 및 ‘성모자선회’ 의료비지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 현황

‘자선진료’는 2019년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에 입각하여 매년 병원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모자선회’는 1995년 대전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선단체로 현재는 교직원과 일반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자선진료’와 ‘성모자선회’는 미숙아, 중증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족, 노숙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및 후원 문의 대전성모병원 사회사업팀 (042)220-9974



‘바스타제인’의 느낌으로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그리스어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단어는 ‘바스타제인’(βασταζειν)의 번역이다.

이 단어가 지닌 첫 번째 의미는 ‘귀중한 것을 품고 가다.’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갈 때 이 동사를 쓴다.”

얼마 전 선물로 받은 책 안에 위와 같은 구절이 나와, 밑줄을 긋고 또 그으며 가슴 안에 깊이 그 뜻을 새겨 보았습니다.

송봉모 신부님은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마다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며 “안고 가는 것은 단순히 견디어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안고 가는 것과 지고 가는 것, 견디어 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읽어 볼수록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지고 가든 안고 가든, 짐은 짐일 뿐이라 당연히 그 짐이 반가울 리 없었고, 그러기에 한시라도 지고 있는 짐이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럼 그 짐의 무게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가벼운 것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음을 인정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음에도, 정작 겁에 질려 가능하면 그 대열에서 저만은 좀 열외 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주님께 떼를 쓴 적 또한 부지기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스타제인’의 느낌으로 그동안 짊어져 왔던 짐들을 다시 바라보렵니다. 어깨나 등으로 짊어졌던 짐들을 풀어 그것들을 품안에 안는 자세 변경을 시도해 보렵니다.

짐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자꾸만 점점 더 굽어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언젠간 버리고 벗어나야 할 짐이라며 이 악물고 버티며 하루를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과 눈 맞추고 자장가를 부르며 달래는 마음으로 아기를 안 듯 살포시 안아 보고 싶어집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학교수

성지를 걷다_정산성지(3)

글·그림 정산성지

3. 성화를 위한 바람

유일하게 청양에서 태어나고 청양에서 순교한 이도기 바오로는, 투옥되기 전에는 복음 전파와 교우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체포된 후에는 배교하라는 갖은 회유와 가혹한 형벌을 받았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였다. 그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청양교회의 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순교 현양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산성지를 조성하였다. 총 신자가 8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작은 정성일지라도 성금을 모으고 빛을 내어 이루어낸 성지에 전국 여러 곳에서 찾아오시는 순례자들을 맞이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순례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첫 미사 봉헌 이후, ‘성지안내 봉사자모임’과 ‘정산구역회’의 신자들이 요일별로 성지에 나가안내 봉사를 하면서, 시설물관리와 청결유지를 위한 활동도 겸하고 있다. 앞으로 각지의 교우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고 찾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고 다듬어 조성한 작은 성지이기에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보완을 통해 알찬 성역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주소 (우33351)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2길 12-2 관할 청양성당 (041)943-6123 미사 요청 시 순례자를 위한 미사 가능

알립니다

교구알림

2024년 찬미반오소서 주간 기념미사

- 때·곳 : 5.27(월) 17:00, 주교좌 대흥동성당
- 집전 : 교구장 김종수 주교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교구법원 공시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나오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 홍미경(테레사, 1961년생)
- 담당판사 : 박지목 신부
- 때 : 2024.5.31(금)까지
- 문의 : (044)270-3060 교구법원

본 당

공세리 성체거동

- 주제 : 성체성사는 기쁨입니다
- 때 : 6.1(토) 10:30
- 주례 : 교구장 김종수 주교
- 문의 : (041)533-8181, 010-7608-8182

제28회 프란치스코평화음악회

- 때·곳 : 5.18(토) 19:00, 목동성당
- 연주 : 디하모니 중창단
- 주최 : 평화음악후원회 / 전석무료초대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 생활 가능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입소어르신 모집

- 대상 : 장기요양등급1~5등급(시설급여)
- 사제 및 수도자 상주 매일미사 및 성사생활가능
- 문의 : (041)950-1104 www.041silver.or.kr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5.16(목) 15:00,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 때·곳 : 5.30(목) 14:00, 탄방동성당 2층
- 집전 : 김재덕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5435-8512

마리아 사제운동(MSM)체나콜로 월례미사

- 때 : 5.20(월) 14:00 체나콜로, 15:30 미사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대강당)
- 문의 : 010-5184-8696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전화문의 : 010-9656-2295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2024년 하계 푸르실로 참가자 모집

- 여성 제180차 7.17(수)~20(토)
- 제181차 7.24(수)~27(토)
- 남성 제180차 8.1(목)~4(주일)
- 청년 제15차 8.8(목)~11(주일)
- 모집 : 남성, 여성 각각 60명(선착순)
- 참가비 : 23만원(3박 4일)
- 자격 : 영세 후 만3년 이상 신자로 본당 주임 신부와 울프레야 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문의 : 울프레야 간사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국악성가 한발합창단 단원모집

- 지휘 : 강수근 신부 직강
- 연습 : 매주 화 20:00
- 곳 : 둔산동성당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 총괄실장 010-2279-0255

제24회 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 미국 :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 영국 :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 사이판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 문의 : (02)734-0999, www.pbccamp.com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 내용 : 6.29(토) 출발
- 지역 : 필리핀 바콜로드
- 내용 : 주중영어연수, 주말봉사활동(봉사인증가능)
- 문의 : 대구청소년수련원 (053) 593-1273

자연명상 그리고 느리게 걷기

- 자연속에서 쉬고 머물며 기도하는 마음산책
- 때 : 6.1(토) 14:30~17:30
- 문의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 때 : 6.14(금)~16(주일) 2박3일
- 곳 : 베네딕도영성관(대구 사수동)
- 주제 :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 문의 : 한국CLC (02)333-9898

수도회 및 피정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치유세미나

- 때 : 6.15(토) 11:00~16(주일) 16:00
- 곳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대상 :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 내용 :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 회비 : 8만원
- 문의 : 010-5490-534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1박 2일 : 6.8(토)~9(주일), 8.24(토)~25(주일)
- 3박 4일 : 5.27(월)~31(금)(4박5일), 6.27(목)~30(주일)
- 8박 9일 : 6.13(목)~21(금), 7.4(목)~12(금)
- 40일 : 10.4(금)~11.12(화)
- 곳 :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거룩한 말씀의 회 창립 60주년 미사

- 초대합니다
- 수도회 창립 60주년 기념 미사
- 때 : 5.20(월) 11:00 미사
- 곳 : 거룩한 말씀의 회 수녀원 성당
- 주례 :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9.11 중세수도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409만원(9/16, 10/6, 10/20 출발)
→ 동반자 100만원 할인상품
T.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의 교수 / 현 충남대의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더베이직안경원

성경도 신부님도 한번에 잘 보입니다.
기술과 정성을 안경에 담아 드립니다.
조학영 안젤모 T. (042)622-1088
동구 한밭대로1322 2층 (용전동, 동부네거리)

모두의 안과

원장: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 때 : 5.17(금)~19(주일), 6.7(금)~9(주일) 2박 3일
- 곳 : 성안드레아 피정의집(인천) / 회비없음
- 문의 : 010-6637-1366 변 바울라수녀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효소단식 : 5.30(목)~6.2(주일), 7.11(목)~14(주일)
- 성경완독 : 6.21(금)~29(토), 7.26(금)~8.3(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수도생활체험피정

- 때 : 5.25(토) 19:00~26(주일)
- 곳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본원)
- 회비 : 3만원
- 문의 : 010-9816-0072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 때 : 5.19(주일) 14:00
- 곳 : 대전가톨릭회관 4층
- 대상 : 만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누구나
- 문의 : 010-3679-7198 강피아수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 :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미리연락)
- 때 : 5.18(토) 14:00 그 외는 전화
- 곳 : 대전 대철회관

청주 성령회관 철야기도회

- 때 : 매주 금 20:00~토 01:30
- 강사 : 이상기 가브리엘, 김용운 나자로
- 곳 : 청주 초정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이 무형의 성전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쉽게 듣고,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특별 메시지
『평화신문 창간과 평화방송 설립을 추진하면서』 중

무형의 성전은 가톨릭평화신문, cpbc라디오, cpbcTV에 이어
가톨릭 콘텐츠 전문 OTT 'cpbc 플러스'로 이어졌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회가 지붕 위에서 외치는

기쁜 소식을 만나보세요!



[cpbc플러스 다운받기]

**순교자학교
(순교영성피정)**

- 6.29(토)~30(주일) 순교자와 어머니
- 8.17(토)~18(주일) 맘의 순교자 최양업
- 9.7(토)~8(주일) 순교와 선교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대전교구 6만원
- 문의 : 010-8848-5690

**외쳐라, 가정과 생명의 복음을!
2024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 2024년 5월 24일(금)
14:30~20:30
- 1부 생명대행진 : 생명을 외쳐라
대전교구청-세종시청 / 오후 3시~4시
- 2부 미사 전 행사
대전교구청 성모당 / 오후 5시~6시 30분
- 3부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대전교구청 성모당 / 오후 7시

주최: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주관: 천주교대전교구 가정사목부
문의: 042)256-5487 <http://familia.djcatholic.or.kr>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차량운행 / 비고
일일대피정	5.13(월) 09:00~17:00	강사 : 신숙자 수녀(아씨시프란치스코수녀회)	지족역 2번출구 08:50분 대기 출발
성모의 밤	5.16(목) 19:00	진행 : 김기범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은혜의 밤	5.23(목) 19:00	강사 : 윤진우 신부(교구 사목국 부국장)	지족역 2번 출구 18:50 대기 출발
천안아산지구 성령기도회	매주 (금) 13:30		곳 :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수도회명(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26(주일) 09:00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문자 문의)
성삼의 딸들 수녀회	전화상담 후 결정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010-7159-9674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18(토) 15:00	대전 목동성당	010-7997-9416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18(토) 14:00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28.6°C 총 모금 286,671,269원

[4.20~26 모금액] 23,934,980원
본당 2,087,380원 / 개인·기관·행사 21,847,600원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노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김벨 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늘봄약국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

대흥동본당, 당진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4월 28일(주일) 대흥동성당(주임 오명관 신부)에서 본당 교우 97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4월 28일(주일) 당진성당(주임 김정식 신부)에서 본당 교우 106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하느님 백성과 교구장 주교님이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임우택 살레시오, 담당 김경호 신부)와 여성연합회(회장 서원자 글라라, 담당 김경호 신부)는 5월 1일(수) 신리성지에서 시작해 솔피성지까지 “하느님 백성과 교구장 주교님이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를 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지향으로 개최된 이번 도보순례는 교구 신자와 수도자, 사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이 참여했다.

신리성지에서 말씀전례로 시작한 순례는 합덕성당을 거쳐 종착지인 솔피성지에서 미사 전 생명을 살리는 쓰레기 Zero 캠페인과 생명나눔 캠페인, 작은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고, 교구장 주교님 주례로 주교좌 대흥동성당 봉헌 대축일 미사로 일정을 마쳤다.

자양동본당 생태환경 보호 활동



자양동본당(주임 최용묵 신부)은 4월 28일(주일) 새 봄맞이 생태환경 보호 및 전교를 위하여 성당 주변과 우송대학교 대로변의 쓰레기줍기 행사를 실시했다.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여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교활동의 기회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 과학의 날 기념 연합미사



직장직종사목부(전담 허승현 신부)는 4월 25일(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2024 과학의 날 기념 연합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총대리 한정현 주교 주례로 허승현 신부, 조성광 신부, 김경호 신부, 방익수 신부 공동 집전으로 연구단지연합회와 직장직종 공동체가 함께한 가운데 봉헌됐으며, 대전직장직종사목부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사목국 복음선교 교육 - 쉬는 교우 찾기(7기)



‘복음 선교 교육-쉬는 교우 찾기(7기)’가 서울, 청주, 전주, 대전교구 6개본당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7일(토)~28일

(주일)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통해 복음선교의 방향과 쉬는 교우 선교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쌍용3동본당 함께 배우는 건강상식 강좌



천안쌍용3동본당(주임 김영재 신부)은 4월 14일(주일) 교중미사 후에 ‘함께 배우는 건강상식’ 강좌를 마련하여 어르신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예방 강좌를 진행했다. 천안 한사랑 가정의학과 엄형택(고돌렌고) 원장이 강사로 재능기부를 하였다.

노은동본당 초등부 복사단 복사학교



노은동본당(주임 김유정 신부) 초등부 복사단은 4월 26일(금)~27일(토) 서울대교구 용문청소년수련장 복사학교에 다녀왔다.

복사 11명이 참가하여 전례실습과 성경나눔 등을 통해 전례의 의미를 더 잘 알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과 깊은 일치를 통해 성소의 꿈을 가지기도 했다.